

드론 폭발물 테러 대비 합동 대응 능력 ↑

전주시, 농촌진흥청서 국가중요시설 테러 상황 가정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전주시는 21일 관내 국가중요시설인 농촌진흥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제9585부대2대대, 7공수 특전여단, 전북경찰청, 덕진경찰서, 덕진소방서 등 12개 유관기관 및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중요시설 드론폭발물 테러 대비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전주시역 국가 중요시설에서 테러 발생시 민·관·군·경 및 소방의 합동 대응 능력을 높여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미상의 비행물체 2대가 국가중요시설을 테러한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사상자 구조 및 화재진압, 테러범 생포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훈련은 전시상황과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드론을 이용한 공격으로부터 전주시역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는 과정이 재현됐다.

훈련은 미상의 드론이 농촌진흥청 건물에 충돌해 건물 일부 폭파 및 화재 발생을 가정한 후 △군·경 도착

후 초동 조치 △경찰특공대 드론재밍 △적 소탕 작전 △폭발물 제거 △소방서 화재진압 및 사상자 구조(병원 후송 등) △시설물 피해복구 조치 등이 단계적으로 시연됐다.

특히 훈련은 정찰차와 소방차, 긴급복구차량 등 다수의 훈련 장비도 총동원돼 더욱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훈련에는 전주시 통합방위위원회 위원들이 참관했으며, 통합방위요소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등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한 뒤, "각종 재난 및 비상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지역 안보를 위해 힘써 주시는 군·경·소방 및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다"면서 "통합방위요소간 긴밀한 협조·공조를 통해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통시장서 흥겨운 행사 즐겨요"

전주시, 치맥&가맥 페스티벌 · 한사발 막걸리 축제 개최

전주시는 모래내시장에서 '제7회 치맥&가맥 페스티벌(8.23~8.24)'을, 신중양시장에서 '제2회 한사발 막걸리 축제(8.30~8.31)'를 개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당장 오는 23~24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제7회 치맥&가맥 페스티벌에서는 막바지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한 맥주로 날리면서, 시장에서 직접 튀겨 만든 치킨을 비롯해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된다.

다양한 먹거리뿐 아니라 초대가수의 축하 공연, 고객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눈여름 다양한 추억을 선물한다.

또 오는 30~31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제2회 한사발막걸리 축제도 신중양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행사장에는 막걸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빈대떡뿐 아니라 육전, 편육, 튀김, 도넛 등 시장 음식들이 방문객을 맞는다. 다양한 먹거리 한 마당과 함께 전통공연, 막걸리왕·마당이 펼쳐진다.

특히 제2회 한사발막걸리 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에 선정돼 마련됐다. 전주 신중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신중양시장



상인회가 함께 주최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도 지속적인 문화행사를 이어간다. 당장 8월 이후로도 와글와글 시장요제를 비롯해, 서부시장 더좋은반복 문화축제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김종성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의 대표 시장에서 열리는 흥겨운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가진 매력을 널리 알리고, 전통시장이 지역 사회의 경제와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 우울·불안 감소 효과

상반기 참가자 636명 대상 검사 결과 우울 24.6%, 불안 27.7% 감소

전주시가 올 상반기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우울·불안 등 부정적 정서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6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우울·불안 척도 검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총 388회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933명 중 636명을 선별해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우울과 불안 정도를 비교했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 우울 및 불안 척도 검사에서 우울 24.6%, 불안 27.7%가 각각 감소해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부정적 정서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참여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마음치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는 95.5%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94.7%가 마음치유에 도움이 됐다고 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에서 운



영하는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마음치유센터는 다양한 이유로 마음의 문제를 겪는 시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

담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심리상담은 올 상반기 동안 1003회 운영, 총 151명의 시민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데 힘이 될 것 같다"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시민에게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거나 심리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전화(063-281-8576) 또는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블로그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도시 구현 협력

전주시-국제로타리 3670지구, 천년전주 결연봉사 협약식 가져

전주시와 국제로타리 3670지구(총재 이지원)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에 힘쓰는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국제로타리 3670지구는 21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이지원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 이대성 로타리 재전협의회 의장, 전주시역 31개 로타리클럽 관계자, 동 주민센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5년도 천년전주 결연봉사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지원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는 전주시역 31개 클럽과 함께 5억 원 상당의 기부를 실천해 전주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나누기로 약속

했다.

협약식에서는 전주시와 국제로타리 3670지구간 협약뿐만 아니라, 전주시역 31개 로타리클럽과 전주시 35개 동 결연협약도 함께 진행됐다.

결연협약에 참여한 31개 로타리클럽과 35개 동은 연 1회 이상의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봉사사업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지원 국제로타리3670 지구 총재는 "지역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아준 전주시와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시역 클럽 회장 및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모색해 민관협력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꾸준히 협약을 이어오면서 민간 영역의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건네 온 국



전주시와 국제로타리 3670지구는 21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이지원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 이대성 로타리 재전협의회 의장, 전주시역 31개 로타리클럽 관계자, 동 주민센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5년도 천년전주 결연봉사 협약식'을 가졌다.

국제로타리3670지구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민관협력 사업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호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술내클럽, 송천2동 독거 어르신에게 자장면 나눔 봉사

국제와이즈맨 한국전북지구 전라지방 술내클럽(회장 진호훈)은 지난 20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동장 강주욱) 소재 '주인공 중화뷔페점'에서 관내 독거 어르신 100여 명에게 자장면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술내클럽은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자장면 나눔 봉사를 실천하였으며,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자 10명의 회원들이 직접 만든 자장면을 대접한 것이다.

술내클럽 진호훈 회장은 "말뭉치 지나도 무더위가 계속 이어져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고자 이번 봉사를 하게 되었다"며 "자장면 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나눔도 계속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사를 제공 받은 어르신들은 "무더



위 속에 입맛이 없고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맛있게 자장면을 먹으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강주욱 송천2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꾸준히 봉사를 실천하는 술내클럽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주변을 살피는 송천2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